

# 강진군, 서리태 대규모 계약재배...농가소득원 창출

㈜두보식품 520톤 계약재배 협약 품목 전환 논콩 산업 내실화 유도 제품개발·안정적 원료곡 구매 지원 쓰러짐 강해 수량 확보 30% 높아

강진군이 서리태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인 소득 확대를 위해 나섰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시 양재동에 위치한 ㈜두보식품 본사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허태곤 ㈜두보식품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정부의 쌀생산량 조절 정책에 따라 올해 급격히 늘어난 백태(메주콩) 중심의 재배 형태를 검정콩의 일종인 서리태로 일부 전환, 농가소득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강진군 논콩 산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진원 군수가 의견제시를 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이날 협약으로 고품질 서리태(청자5호) 생산단지(150ha)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원료곡 생산으로 소득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두보식품

은 종자공급은 물론 강진산 서리태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곡 구매 등을 지원키로 했다.

협약 대상 품종인 서리태 '청자5호'는 기존 서리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품종으로 재래종보다 병과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 수량 확보가 30%가량 높다.

더욱이 꼬투리가 높게 달려 기계수확에 수월한 장점이 있어 낱알이 기계화돼 가고 있는 논콩 재배에 적합하다. 강진군은 2025년 '청자5호' 계약재배를 통해 약 520톤, 30억원의 조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청자5호'가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과 같은 기능성, 높은 당도와 단백질 함량, 장류 가공 때 구수하고 깊은 감칠맛을 내는 등의 특성에 따라 가공업체에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30여 농가, 30ha를 대상으로 시범 재배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강진군은 올해 '청자5호'와 같은 서리태 검정콩과 함께 전반적인 논콩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강진원(오른쪽) 강진군수가 서리태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허태곤(좌)두보식품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논콩 재배 육성 지원사업으로 1ha당 50만~150만원,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으로 1ha당 200만~350만원 등 필자별 상황에 따라 최고 400만원, 트랙터 부착용 논콩 파종기, 붐스프레이 등을 지원했다.

올해 강진군의 논콩 재배 면적은 전년 176ha 대비 약 200% 이상 증가한 360ha로 목표면적 300ha를 훌쩍 넘었으며

2025년에는 최대 700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서리태가 날로 늘어나는 논콩 시장에서 틈새 소득원이 됨은 물론, 백태와 함께 쌀 소비감소 및 가격 하락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관점에서 생산과 유통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단속 강화 무안군, 망운·운남면 일대 등

무안군은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망운·운남면 일대에는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 KTX무안 국제공항역 개통 예정,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올해 현재까지 지난해 대비 36.4% 증가한 382건의 실거래가 이뤄졌다.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지난해 대비 증가했고 앞으로도 사무소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무안군은 향후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망운·운남면 일원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해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군은 이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등을 방문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기획부동산 형태의 불법 거래행위 등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 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분명한 개발내용과 주변 실거래가는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61-450-5414)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안=김행언 기자

## 영암서 천하장사씨름대축제 개최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영암군에서 올해 대한민국 씨름의 최강자를 가르는 천하장사씨름대회가 개최된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사)대한씨름협회 주최, 영암군체육회와 영암군씨름협회 주관의 '2024 천하장사씨름대축제'가 오는 25일부터 12월1일까지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전국 39개팀 100여 명의 선수와 씨름인이 모여 모래판 위에서 각축을 벌이는 이번 대회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씨름의 최고봉 대회로 꼽힌다.

25일 초등·중등·고등·대학부 '최강단전' 경기를 시작으로 소백 72kg 이하, 태백 80kg 이하, 금강 90kg 이하, 한라 105kg 이하 '남자체급별 장사전', 대화 60kg 이하, 국화 70kg 이하, 무궁화 80kg 이하 '여자체급별 장사전', '세계특별장사전', 140kg 이하 '천하장사전' 이 진행된다.

각 체급별 장사결정전은 KBS 1TV와 KBSN SPORTS 채널에서 생방송 중계되고 스포스서십을 체결한 유튜브 샬바TV 채널에서는 경기와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다.

천하장사씨름대축제 경기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선착순으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위해 경품 추첨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영암군에서 개최하는 민속씨름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관람 바란다. 대회 시설과 안전대책, 식당·숙박업소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성공 대회를 이끌겠다"며 "영암군민속씨름단이 홈그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응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 출력 변경 미신고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8km 해상에서 기관 출력을 변경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217톤·쌍타방·10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관내 해역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 A호의 어업활동 허가증 상 기관 출력과 실제 출력이 상이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해 A호는 제한 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한 후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석방됐다.

목포=정기찬 기자

## 해남군, 유기농업자재 신청 녹비작물 종자대·기자재 등

해남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겠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녹비작물 종자대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을 지원한다.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을 지원한다.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재배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등으로 ha당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 일반 관행농업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신청농지를 중복해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지난 8~9일 신안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신안군수기 생활체육대회에 지역 선수들이 참가해 배드민턴 실력을 겨루고 있다. 신안군 제공

## 2024 신안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성료

신안군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는 '2024 신안군수기 생활체육대회'가 축구를 비롯한 9개 종목에 약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대회는 신안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역량을 다해 열린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에 앞서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등 연륙이 되지 않은 도서지역 선수들이 이동 불편을 감수하고도 568명이 참가해 대회의 취지를 살리며 지역 화합의 장이 됐다.

현재 신안군 체육회는 32개 종목 3000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4월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22개 종목 25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회식에서 "2025년에는 지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암태 국민체육센터 2곳에 수영장이 개설될 예정이며 자은 파크골프장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군민이 이용하는 신안군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해남군, 전통놀이 한마당 연다

### 15일 군민광장서

해남군민광장에서 늦가을 풍요로움이 가득한 전통놀이 한마당 공연이 열린다.

해남군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해남군 전통놀이와 읍·면 풍물공연 등이 총망라된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연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를 비롯해 해남군 문내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수영 부녀농요와 우수영 들소리를 차례로 선보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 강강술래의 원형을 이어오고 있는 문내면 우수영강강술래보존회의 시연에 이어 명랑대첩축제 온겨레강강술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땅끝강강술래단, 동호인들이 꾸준히 연습을 함께해 오고 있는 해남문화원 강강술래단 등의 보급형 강강술래도 선보일 예정이다.

우수영부녀농요는 부녀자들이 농사일

을 하면서 부르는 민요로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라우수영 들소리는 논과 밭에서 들일을 할 때 부르는 소리로 남자들이 불렀던 농요이다. 지난 2022년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해남출신 국악 전공자들이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 해원의 풍물굿과 해남군 10개 읍·면 연합풍물패 공연도 볼거리이다. 120여명이 참가하는 해남 연합풍물패는 각종 축제 등에서 합동공연을 펼치며 대규모 풍물패의 신명나는 한마당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해남=전연수 기자